

2015. 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5.9.30.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박희원, 김형주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5	8	-	1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3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8월
교양	TV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 동반성장	TV와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 선보여	8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 다양하게	토크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인사 섭외하고 있음	8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찬반 양론 심도있게 처리	시사프로그램 찬반 입장 균등하게 전달	8월
교양	생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장비 점검	생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리포터 오디오 장비 철저 점검	8월
교양	건강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따라 해볼 수 있는 동작 소개	건강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영상 제작	8월
교양	시사프로그램에서 지역현안 주제 밀도있게 취재	시사프로그램 지역 현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	8월
교양	사랑의 집 고치기 같은 공익성소재 발굴	사랑의 집 고치기 취재 방송 공익성 소재 지속적 발굴	8월
교양	생방송 아침 교양 프로그램 요일별 특화 필요	생방송 교양 프로그램 요일별 특화 띠 편성하고 있음	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9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이번 건강플러스(9월 12일)에서는 제철을 맞은 가을 전어의 올바른 먹거리와 허리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다.</p> <p>먼저 ‘올바른 먹거리 건강밥상’에서는 가을 제철을 맞은 전어를 이용한 먹을거리를 소개하였는데, 이전의 ‘맛있는 처방전’과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금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올바른 먹을거리를 소개한다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p> <p>‘TV 주치의’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통증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주치의가 이해를 돕기 위해 척추모형을 직접 가지고 나와 허리통증의 다양한 사례와 원인, 특징,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에 따른 치료방법이나 검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허리통증에 대한 치료 중 운동치료방법은 영상으로 준비하여 시청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나 시범을 보여주길 바란다(오덕성).</p>	<p>건강플러스>는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건강문제를 직접 다루는 프로그램이다.</p> <p>건강밥상 코너는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집에서 간편하게 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p> <p>시청자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식단을 고민하겠다.</p> <p>TV주치의는 객관성을 담보로 대학병원 등의 전문의가 출연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소개한다.</p> <p>치료방법 중 시청자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동작 같은 것은 영상으로 처리하여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p>	○		
편성	<p>이번 주<생방송 아침이 좋다>(9월 23일)는 기존 스튜디오가 아닌 MBC 사옥의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가을을 맞이하여 자연의 변화를 시청자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p> <p>한편, ‘대전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 소개는 지역민들이 대전 원도심 재생의 일환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수상한 치킨집의 비밀’은 치킨집의 직원들이 서빙을 하며 프로그 성악을 선보이는 참신한 아이템을 소개해 주었다. 직원과 손님들의 생동감 넘치는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알려주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서계마을 부스개’ 소개는 리포터들이 위트 있는 말솜씨로 진행하여 가족들과 보기에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p> <p>아침이 좋다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정하여</p>	<p><시청자에 보다 더 가까이>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전 스태프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고민하는 명제이다.</p> <p>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지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정보의 전달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템의 선정과 시청자들과 소통을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방송을 준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덕성).</p>			
편성	<p>시사플러스(8/21)에서 300회 특집으로 “지역을 말하다”를 방송하였다. 2008년 6월부터 시작되어 300회를 맞아 특집방송으로 지난 3명의 역대 진행자를 초청하여 대담과 회고를 나누는 포맷으로 설정하였다. 역대 진행자(변호사, 대학교수 등)들이 외부로부터 참여한 진행자로서 방송의 어려움에 대한 회고와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이나 향후 다룰 주제방향에 대하여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아보였다.</p> <p>1, 2부 중간에 지난 7년간 연도별로 주요 이슈가 되었던 내용과 함께 프로그램의 제작의도와 방향을 보여 준 것은 좋은 제작으로 생각된다.</p> <p>2부 진행으로 당일의 주제인 지역의 주요 이슈 현안들을 논의하였고, 3개 지자체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문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민의 관심이 높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선정하여 특집방송으로서 잘 마무리 하였다고 본다</p> <p>장소가 협소하여 카메라 앵글에 제한을 받기는 한 것 같으나,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의 뒷면으로부터 화면이 나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였고, 음식을 차려 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다소 어색한 모양이었다(김명수).</p>	<p>300회 특집으로 방송한 <지역을 말하다>는 지역에서 시사프로그램을 300회까지 이끌어 온 그간의 성과물에 대한 정리의 자리였다.</p> <p>장소나 카메라 앵글의 문제는 요즘 서민적, 복고풍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고심 끝에 정한 세트였고, 그 점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듯하다. 보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p>		
보도	<p>시사광장 (9/20)에서 “미래부 과천 잔류?”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을 가졌다.</p> <p>최근 행자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서 이전대상 부처에 미래부가 포함되지 않자 지역민과 언론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성있는 주제와 패널 구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만한 방송이었다.</p> <p>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기능적 측면이나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도 일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여, 여야대립이나 지역갈등 문제가 아님을 알리고 있다.</p> <p>정부는 이전여부 결정된 바 없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 청사진을 밝혀 향간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p>	<p>찬반양론으로 나뉘는 주제가 아니어서 토론으로서의 생동감은 부족하였으나 지역의 주요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토론을 기획하였다.</p> <p>가급적 주요 관심사이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p>		

	<p>하다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참여한 모든 패널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토론프로그램으로서 생동감은 부족하였다(김명수).</p>			
<p>보도</p>	<p>뉴스데스크에서 요일별 기획뉴스를 신설한 것으로 안다. 뉴스방송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생각된다. (월)스포츠뉴스, (화)톡톡 과학기술, (수)인생2막, (목)주말어디로, (금)문화 이야기 등 요일별 색다른 주제와 전담기자를 배정, 집중 취재하여 일상적인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뉴스 아닌 뉴스로서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월 방송된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보니 (9/1)생명연의 미생물 활용 항암물질 개발, (9/8)표준연의 표준가스로 음주측정기 정확도 점검, (9/15)화학연의 자동차 엔진코팅제 개발 등 생활 속의 과학기술 활용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보여줌으로서 특히 연구개발특구내의 다양한 연구소들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로서 좋은 기획으로 생각된다. 요일별 코너 활용을 더욱 펼칠 길 바란다(김명수).</p>	<p>저희 기획뉴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 발굴과 시청자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영상의 품질을 높여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획보도를 제작하겠다.</p>	<p>○</p>	
<p>편성</p>	<p>대전MBC 예쁜 엽서 공모전에 이어 대전 MBC 1층 M 갤러리에서 9.16~9.29 까지 열린 작품 전시회는 엽서나 편지 쓸 일이 거의 없다 시피 한 지금의 우리들 에게 시하는 바 크다 하겠다. 거의 30여 년 만에 열린 이번 예쁜 엽서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대전의 3대 하천 사랑 부문으로 응모 주제가 주어지고 특히 규격이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응모자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대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손 편지가 안겨주는 정감어린 모습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동기부여의 계기가 됨은 물론, 7080세대에게 라디오 전성시대에 대한 추억을 떠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M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한 면면들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 갈 수 있는 요소가 됐다. 30여년 만에 부활한 이번 예쁜 엽서 공모전이 대전MBC 라디오의 특화된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예쁜 엽서 공모전 시행 초기의 우려</p>	<p>20년만에 부활한 <예쁜 엽서 전시회>는 라디오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라디오 매체는 로컬리티 구현이라는 지역방송의 지상과제에서 보다 충실한 매체라고 판단된다. 청취자의 이웃이자 벗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송이 바로 MBC- Radio의 근본 정신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친밀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많은 행사를 만들어가겠다.</p>	<p>○</p>	

	<p>와는 달리 청취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2015 대전MBC 예쁜 엽서 전시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악한 여건을 헤쳐가면서 열정을 다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김학선).</p>			
<p>보도</p>	<p>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며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명절 때만 되면 꼭 듣는 단어가 있다. 고향을 오고갈 때 쓰는 단어 ‘귀성길’과 ‘귀경길’. 부모를 뵙기 위하여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으로 정의하는 ‘귀성’. 서울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으로 정의하고 있는 ‘귀경’.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 귀성길, 귀향길, 귀경길. 이제는 서울에 사는 자식들과 함께 하려는 ‘역귀성객’들도 만만치 않다. 많이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쓸 때 마다 헛갈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모든(?) 자식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경길’이란 어려운 표현 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귀갓길’로 쓰자는 캠페인이 이번 추석 연휴에 눈에 띄었다. 방송언어는 어떤 특수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일상어여서 쉬운 말이어야 한다(김학선).</p>	<p>기사 작성 시 ‘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귀성, 귀경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표현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p>	<p>○</p>	
<p>편성</p>	<p>시사플러스(9월 18일)편에 ‘경쟁과 황포에 시름하는 자영업자’가 방송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이미 가득 찬 포화상태이지만 청년일자리와 고용시장의 축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비자발적인 자영업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과당 경쟁속에 폐업이 속출하고 기존 자영업자도 덩달아 영세해지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날 시사플러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우선 먼저 과당 경쟁 속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의 실태와 그 원인을 진단해 보고, 숙련된 기술이나 영업노하우가 없이 뛰어난 생계형 창업의 잇따른 폐업 문제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관학교,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대기업과의</p>	<p><시사플러스>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과 대책을 진단해보며, 자영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날을 앞당겨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순수 자영업자수는 557만 명이지만, 함께 장사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려 7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 이는 2010년부터 시작된 ‘9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청년 창업’에 따른 것으로,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자영업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두겠다.</p>	<p>○</p>	

	<p>싸움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미미한 역할을 지적하고, 영세한 동종 자영업자간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 통과되어 다소나마 상가관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알려 주었다.</p> <p>전체적으로 자영업자의 처해진 현실과 무분별한 생계형 신규 창업에 대한 위험성과 경종을 울려 주었다고 본다. 특히 정확한 시장조사 및 경쟁력 분석 없이 성급하게 ‘묻지마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사전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본다. 또한 전체 구성도 자영업자의 실태와 원인 진단, 사례 소개, 관련 정책 소개 및 기존 정책의 문제점 지적, 대안제시 등 잘 이루어졌다고 본다.</p> <p>끝으로 시사플러스에서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계약을 통해 폐업 속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하루빨리 대기업진출 제한업종 선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재취업시장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 이번 방송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장백기).</p>			
기타	<p>그동안 대전 MBC 인터넷 홈페이지는 많은 개선과 업그레이드로 시청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곳에서는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곳도 보인다. [시청자와 함께 - 시청자 의견] 란 관련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지금은 공지의 글로서 적합하지 않은 공지의 글은 바로 내려, 시청자로 하여금 대전MBC 홈페이지가 잘 운영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한다.</p> <p>각 방영 프로그램별 홈페이지의 ‘시청자 관련’ 란을 살펴보면 시사플러스와 생방송-아침이 좋다는 ‘시청자 제보’ 란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시청자 의견’ 란으로 되어 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시청자 제보’ 보다 ‘시청자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장백기).</p>	<p>지적한 내용은 수정하여 처리하였다. 시청자제보란은 시청자의견으로 수정하였고 내용이 오래된 공지사항 또한 정리하였다.</p>	○	
편성	<p>건강플러스 “허리통증”(9/12)편을 시청하였다. 말로만 허리 허리 했지만 방송을 보니 얼마나 그동안 허리에 대해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고 무척 유익했다. 허리 통증의</p>	<p>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학병원 및 이에 준하는 병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핵심 질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을 설명</p>	○	

	<p>10% 미만만 디스크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또 대부분 자연치유 된다는 사실도 알았다.</p> <p>그 밖의 운동요법이나 근육 강화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소개되었다.</p> <p>주사요법에 무조건이다시피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나 한방에서 사용하는 추나, 침술 등의 효용 내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성정모).</p>	<p>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p>		
<p>보도</p>	<p>시사광장 “충남 서해안, 낚시배 안전한가?(9/13)편을 시청하였다.</p> <p>최근 제주도 인근 추자도 어선 전복 사건 등 낚시배 사고가 잦은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p> <p>추자도 사건 이후 출조예약이 다 끊겨 지역경제 발전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도 전달하고 있다.</p> <p>충남도에서 낚시배로 약 500억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이니 낮은 수치는 아닌 듯하다.</p> <p>개인적으로 최근에 거제도에서 유람선을 탔다가 호된 경험을 한 일이 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유람선이 요동을 쳤고 도저히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람선이 요동을 쳤고 도저히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람선 회사 측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통제가 되어 출항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겨우 항에 돌아오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우리 다음으로 배를 타려고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관광객들을 보니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p> <p>어쨌든 방송 내용은 상당 부분 정보전달은 되었지만 결국 해결방법을 제시 하고 있지는 않다. 안전과 경제 이 두 목표는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쟁점이 되었다. 해외사례의 도입이든 예산확보든 결단이 필요한 국면이지 그냥 걸치fp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방송내용은 조금 어쩡쩡한 것이 아닌가 싶다(성정모).</p>	<p>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낚시배에 대한 관리 대책 등 제도적 개선점을 짚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미흡했던 것 같다.</p> <p>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토론을 통해 도출될 수 있도록 패널 선정과 소주제 선정에 각별히 신경쓰겠다.</p>	<p>○</p>	
<p>편성</p>	<p>메르스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9/25) 한 편이 내 마음을 적셨다.</p> <p>메르스와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잘 그려냈다.</p> <p>의료진, 간병인, 확진자 등의 생활모습을</p>	<p>대한민국에 큰 흔적을 남긴 메르스는 대전-충남도 예외가 아니었다.</p> <p>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메르스를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를 고민하였다. 메르스를 대처하는 의료진 등을 관심을 두고 다</p>	<p>○</p>	

	<p>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p> <p>좋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 기쁘다 (한찬희).</p>	<p>큐멘터리로 제작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이 다시 발생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각성해 볼 필요도 있었다. 격려에 감사드린다.</p>			
편성	<p>건강플러스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다.</p> <p>건강플러스의 진행자인 김경섭 아나운서를 활용해보자. 의자에 앉아 질문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직접 관련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시청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을 듯싶다.</p> <p>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병을 설문조사나 문자로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질병에 관한 시청자들의 경험, 에피소드 등의 사연을 받아 제작을 해도 흥미가 있을 듯싶다.</p> <p>음식 코너인 건강밥상에 전문가가 너무 많이 등장한다. 한의사, 요리전문가, 관련 교수 등이 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데 회차를 다르게 하여 출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p>	<p>방송되는 내용은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의 경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제작진은 이에 대한 원활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깊이 고민하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p>	○		
보도	<p>보도국 뉴스데스크 요일별 특화된 기획코너를 보면 브릿지 타이틀이 어떤 요일에는 있고 어떤 요일에는 없다.</p> <p>월:스포츠, 화:과학, 수:인생 2막 목:주말 가볼만 한 곳 금:문화가 소식 등 기획코너에 통일성과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p> <p>이왕 시청자들에게 기획코너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일별 기획코너에는 전체적으로 브릿지 타이틀을 제작하여 삽입하기를 바란다(김명수).</p>	<p>기획코너의 주목성을 위해 브릿지 타이틀을 추가 제작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p>	○		